

소집단과 네트워크의 형성 기제로서의 '비밀' :

게오르그 짐멜의 '비밀결사'와 미셸 마페줄리의 '부족'을 중심으로

金 武 慶

I. 서 론

II. 게오르그 짐멜과 '비밀결사'

III. '부족'과 '네트워크'의 형성 기제로서의 '비밀'

IV. 결 론

I. 서 론

다양한 형태의 관료제적 조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소집단과 네트워크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선 여러 유형의 '신사회운동'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보다 일상적인 차원의 소모임들¹⁾ 또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관련한 예들 중의 하나를 살펴보자. 1994년 12월 14일의 <<동아일보>>는, “공동체 의식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동네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벌여온 시민들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세종문화회관 대 회의실에서 (...) 「따뜻한 이웃모임 이야기 마당」이 열린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발표에 나선 소모임들은, “평균 한 울타리 가족”, “무지개모임”, “아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편지가족”,

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조직 형태에 대한 바로 이러한 일상적 차원에서의 욕구가 있기에 ‘신사회운동’이 가능하며, ‘신사회운동’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은 또한, 우리 사회의 ‘모임’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다고 지적되는 ‘연줄과 연줄망’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집단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기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에 의하면, ‘비밀’이 한 집단의 존재 양태와 관련되는 경우- 그 전형적 형태가 ‘비밀결사’일 터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행한다. 즉, 비밀은,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집단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 내부적으로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창조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이념이나 세계관, 생활양식과는 거리를 두거나 대립되고, 혹은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은 다소간 <비밀스런> 모습을

“어린이 도서연구회”, “한국자전거소년단”, “놀이연구회 「놀이」” 등이다.

2) 이와 관련한 논의의 예를 들어보면 :

- 김선업,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 박길성(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서울; 나남, 1993.
- 정수복, 「한국인의 모임」, 일상문화연구회, 『한국인의 일상문화』, 서울; 한울, 1996.

김선업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연결망의 윤희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리고 ‘강한’ 연줄의 안주로부터 벗어나와 ‘약한’ 연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에서 질적 ‘변화의 미시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정수복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모임들이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주로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 후, 그것들을 어떻게 ‘미시동원’의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윤희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가 과제라고 주장한다.

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움직임들은, 자율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비밀을 공유하는 그 구성원들은 비밀에 대한 바로 그러한 공유로부터 연유하는, 그들에게 고유한 '신뢰'를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와 같이 집단들이 다소간 비밀스런 형태를 띄면서 내부적으로는 친밀주의적인 연대를 유지하였을 때, 그것들이 구성하는 거시적 구조는 일종의 '비공식적 조직'으로서의 '네트워크'이고, 바로 이러한 연결이 발견되는 시기는 무언가가 새로이 <창건되는 시기>(founding moment)는 아닌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그것은, 초기 기독교 원시 공동체의 경우일 것이다. 즉,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취했던 일종의 '비밀결사' 양식과 그것들간에 맺어졌던 네트워크를 연상할 수 있겠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부족주의'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생성중인 사회 조직 형식을 '소집단'-마페졸리의 비유로서는 '부족'-과 그것들이 창출해 나가는 '네트워크'로 파악하고자 하는 마페졸리(Michel Maffesoli)³⁾의 논의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마페졸리는 그의 '부족주의'의 기본 특징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교적 모델"⁴⁾, "비밀의 법칙"⁵⁾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부족'이 종교적 종파, 비밀 결사들 또한 모델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 의식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우선 짐멜의 '비밀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 집단이 '비밀스런'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 집단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피기로 하겠다. '비밀결사'는 물

3) 특히 그의, *Le Temps des Tribus*, Paris: Méridiens Klincksieck, 1988.

4) 같은 책, 4장 3절.

5) 같은 책, 4장 5절.

론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를 통하여 보다 일상적이고 완화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짐멜의 논의의 적용 및 확장의 예로서 마페졸리가 '부족'이라는 메타포를 써서 지칭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의 소집단에 있어서의 '비밀'의 역할을 살피도록 하겠다. 우리는 특히, 마페졸리가 '비밀'의 영역을 '이중성'의 범주로 확장시키면서 '정치적 무관심'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이 '소집단' 및 '네트워크'의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II. 게오르그 짐멜과 '비밀결사'

1. '역설적 세기'로서의 19 세기와 '비밀결사'의 창궐

우리는 우선 짐멜의 '비밀결사'에 대한 글을 그 글이 쓰여진 역사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에 위치시켜보도록 하겠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의 분석이 유효할 것이다. 뒤랑은, '상상계'(imaginaire)의 차원에서 서구 유럽의 19세기를,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역설적 세기"로 특징짓는다⁶⁾. 뒤랑은 19세기의 "혁명적 계몽주의"와 '실증주의'의 도약으로 대변되는 '진

6) Durand, G., "Les Mythes et Symboles de l'Intimité au XIXe Siècle", *Figures Mythiques et Visages de l'Oeuvre* (1979), 2e éd., Paris; Dunod, 1992, p.221-225. Gilbert Durand의 '상상력'의 사회학, 혹은 그가 부르는 바대로의 '심층의 사회학' 방법론에 대한 정리로는 최근에 번역된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질베르 뒤랑,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 심층사회학을 위하여』, 유평근 옮김, 서울; 살림, 1998. (Durand, G.,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Mythes et Société*, Paris; Albin Michel, 1996.)

보주의'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낭만적 친밀주의”가 나타나고 도약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하면서 이 현상을, 그가 “사회-문화적 역설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19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새로운 가치관을 뒤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구학적 팽창,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도시의 발전, 중세적 농촌 공동체에 대한 거의-익명적인 ‘사회’의 대체, 삶의 조건 혹은 적어도 삶에 대한 열망을 평등하게 하는 사회 이동, 그리고, 신학적, 형이상학적 옛 질서에 대한 인본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질서의 대체 등. 그런데, 이러한 진보주의의 저항하기 힘든 진전 속에 친밀주의의 “낭만적 동굴(caverne romantique)이 파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이라고, 뒤랑은 강조한다. 달리 얘기하면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가치들이, 프로이트의 용어를 따르자면, 진보주의의 상승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고, 그것에 죄책감이 아니라면, 적어도 노스탈지아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진보주의’와 ‘친밀주의’의 대립을 뒤랑은 다시 다음과 같은 대립 항들로 요약한다: 인구학적 폭발과 그에 대비되는 친밀주의적 침거; 사방의 시골로 뻗어 가는 도시와 그에 대비되는 “초가집의 노스탈지아와 이국적인 야생의 파라다이스의 신기루”; 계몽주의의 평등사회와 그 과학주의적 발전에 대비되는 비밀결사들과 그들의 미스터리 및 복잡한 위계, 비의(秘儀)적인 것으로의 회귀, 마술의 확산 등⁸⁾. 이러한 대립되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19세기야 말로 “역설적 세기”⁹⁾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뒤랑은 더 나아가 이 상황을 “가치들의 동시적 대비”로

7) 같은 글, p.222.

8) 같은 글, p.222-223.

9) 마르크스(K. Marx), 그리고 생-시몽(Saint-Simon)의 경우를 통하여, 19세기가, 지금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역설적 세기”임을 보이고 있는 뒤랑의 또 다른 글로는, 뒤랑,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앞의 책, 제 1장을 참조할 것.

분석해 낼 수 있음을 보인다. 즉, 19세기의 경우, 양시앙 레짐의 쇠락하는 사회적, 교육학적, 문화적인 가치들에 대항하여 계몽주의, 진보주의, 실증주의가 힘차게 올라온다면, 이러한 계몽주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심층적인 회귀, 즉, 친밀주의의 회귀에 의하여 거부되고 저항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세기의 의식, 특히 낭만주의의 의식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바로 내부적 대립, 가치의 동시적 대비, 회귀 등이라고 뒤랑은 분석한다¹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짐멜의 「비밀과 비밀결사」 중 ‘비밀결사’ 부분의 프랑스어 첫 번역에 해제를 붙이고 있는 노라(Pierre Nora)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특히 노라는 짐멜의 분석을,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의 대대적 확산을 경험하는 19세기 유럽에서, 그와 동시에, 비밀결사의 확산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역설적 상황 속에 위치시키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는 말 그대로 “역설적 현상”인데, 왜냐하면 비밀 결사들은, 오히려, 그 원칙 상 사회의 모든 부분이 말하자면 <투명성>을 지향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에 창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비밀결사’들은, 노라에 의하면, 유물론적이거나 합리주의적인, 어쨌든, 비종교적인 독트린들을 표방하면서 기존 권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들은, 소속 집단에 대한 열정적이고 거의 신비주의적인 완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더니티의 아방가르드’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비밀결사들이었다는 것이다¹²⁾.

10) Durand, G., 앞의 글, p.224.

11) Nora, Pierre, "Georg Simmel, Le Mot de Passe", *Nouvelle Revue de la Psychanalyse*, 1975, no. spécial sur 'le secret', p.307.

12) 노라의 지적에 상응하는 예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들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경우 예의 하나가 생-시몽주의자들의 경우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노라의 “민주주의 운동”과 “비밀결사의 창궐”이라는 대비, 그리고 뒤랑의 ‘진보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대립이라는 ‘역설적’ 현상을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한 셈인데, 이런 유형의 현상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듯이 짐멜은,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밀의 양은 아마도 일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비밀의 형식을 가로지르며 내용들의 항구적인 간조와 만조가 생성된다 ; 원래 표명되었던 것이 비밀이 되고 원래 감추어졌던 것이 그 마스크를 내던진다 -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 다른 면에서 동일한 조건들 속에서 인간의 공존은 일정한 부분의 비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밀은 단지, 이것을 차지하고 저것을 포기하면서, 그 대상만을 바꾸지만 이 교환에서 그것의 양은 변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¹³⁾

2. ‘비밀결사’와 그 본질

짐멜에 의하면 비밀이 주로 개인의 존재, 행동, 소유의 차원과 관련되는 한 비밀의 사회학적인 의미는 ‘외부적’이다. 즉, 비밀을 간직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때 비밀은 고립과 폐쇄, 대립, 그리고 개인주의화를 낳는다.¹⁴⁾ 반면, 비밀 결사의 경우와 같이, 한 집단이 비밀을 그들의 ‘존재 형식’으로 취할 경우, 비밀의 의미

는 cf. 루이스 A. 코저, 『살롱 카페 아카데미 (지식인과 지식 사회)』 (1970), 이광주 옮김, 서울; 지평문화사, 1993, 제9장, ‘정치당파-생시몽주의자’.

그리고, 생-시몽주의자들의 활동의 보다 완벽한 역사에 대해서는, cf. Charléty, Sébastien, *Histoire du Saint-Simonisme (1825-1864)* (1931), Paris; Ed. Gonthier, 1965.

13) Simmel, Georg, *Secret et Société Secrète*, Paris, Circé, 1989. pp.48-9. 이 글은 원래 Simmel의 *Soziologie*(1908)의 한 장을 구성한다.

14) 같은 글, p.63.

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선 짐멜은 논의의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밀결사들의 예를 들고 있다. 한편으로, 음모 집단, 범죄자 집단, 종교적 비밀 집회, 그리고 윤리적으로, 특히 기존의 성 윤리에 위배되는 집단 등, 그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숨겨져 있는 비밀결사와, 다른 한편으로, 비밀이라는 ‘형식’은 제약 없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그 구성원들, 목적들은 비밀에 부쳐져 있는 원시 종족들의 수많은 비밀 결사들, 페리 메이슨 단(團) 등의 “비교적 비밀스러운 결사들”을 짐멜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짐멜에 의하면, 이러한 비밀결사에 공통적인 점은, 비밀의 의미가 이 경우, 개인에 관계될 때와는 달리, ‘내부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때 비밀은,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매우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비밀을 함께 간직하는 이들의 상호 관계들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비 입문자들에 대한 배제와 더불어 바로 이 점이, 짐멜에 의하면, 비밀 결사의 사회학의 핵심이 된다.

이제 우리는 짐멜의 분석을 되도록 충실히 따르면서,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비밀의 행동에 의하여 정의되는 한 집단의 내재적 형식들”¹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밀결사의 기능 : 보호와 신뢰 형성

(1) 외부로부터의 보호

비밀결사에 있어서 비밀의 역할은 우선 ‘보호’이다¹⁶⁾. 그러나, 짐멜이 적절히 지적하듯 “두 사람이 아는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라는 상식을 받아들인다면, 비밀결사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밀은 결국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또한 비밀결사의 약점이

15) 같은 글, p.63-64.

16) 이하의 요약은 다음을 바탕으로 함 : Georg Simmel, 앞의 글, pp. 65-67.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짐멜은 비밀결사에서 비밀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는 “완전하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이고, 또한 과도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즉, 비밀결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때까지 그 어려움과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면서 숨을 수 있는 보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밀 결사는, “아직 유년기에 있는 (...) 사회 형식”에 적당하다고 짐멜은 주장한다: “비밀 결사는 따라서, 그 아래에서 싸들이 보호 아래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형식”이다¹⁷⁾. 즉, 지식, 윤리, 종교, 정당은 그것들이 아직 약할 때, 즉 그것들이 형성 단계, 혹은 실험 단계에 있을 때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숨는다. 따라서 “새로운 존재 조건들”이 생성되고 있고 실험되며 그것이 집권 권력과 대립되는 시기들은 비밀결사의 출현이 예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짐멜은 분석한다¹⁸⁾. 그런데 짐멜의 분석에서 재미있는 점은, 비밀 결사는 자라나는 세력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힘을 잃어 가는, 즉, 새로운 것들에 의하여 위협받는 세력들 또한 보호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존재와 비 존재 사이에 말하자면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를 표상하는 그러한 비밀 속으로 도피하

17) 같은 글, p.67.

18) 짐멜의 이러한 지적에 상응하는 역사적 예는 쉽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한 예로서는, 서구 열강에 의하여,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상하는 새로운 사회 정치 세력들에 의하여 위협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 이념적인 위기에 봉착한 중국 근대에서의 비밀 결사의 창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편전쟁 직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중국의 비밀결사를 다룬 연구들로는 cf. Chesneaux, Jean(ed.), *Popular Movements and Secret Societies in China 1840-1950*, Stanford Univ. Press, 1972., 그리고, Davis, Fei-Ling, *Primitive Revolutionaries of China. A Study of Secret Societi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1971), Routledge & Kegan Paul, 1977.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⁹⁾. 마치 죽는 순간이 가까워 옴에 따라 보금자리로 숨어드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짐멜은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비밀 결사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종교 과정 안에서일 것임을 상기시키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생성 단계의 기독교의 경우를 보여준다. 즉, 국가 종교로 인정되기 전 국가에 의해서 박해받을 당시 소위 기독교 원시 공동체들은 그들의 존재 전체를 숨겨야 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자마자, 집회와 종교 의식을 비밀에 부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박해 하에 놓이게 된 이교(異敎)의 신봉자들에게 된 것이다. 마치 현재의 국가 종교가 생성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비밀 결사는 도처에서, 중앙 권력들의 압제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짐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비밀결사는 전제주의와 경찰의 탄압의 하나의 상관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단지 정치 권력의 강압적 폭력뿐만 아니라, 교회, 국가, 학교, 가족 내에서의 그것에 또한 대항하여”²⁰⁾.

(2) “윤리적 연대의 효과적 학교”로서의 비밀 결사 :

비밀과 침묵, 그리고 신뢰

비밀 결사에서의 비밀의 기능이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외부로부터의 보호라고 한다면, 비밀 결사의 이러한 외부적 특징에 상응하는 하나의 “내부적 특징”은 그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이다²¹⁾. 그리고 이를 통해, 비밀의 보호를 찾는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원들 간에 활

19) Simmel, 앞의 글, p.66.

20) Simmel, 앞의 글, p.67.

21) 같은 글, pp.67-70.

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경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뢰가 “침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를 통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점이다. 짐멜은 다시 덧붙인다 ;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추상적인, 인격에의 믿음에 관계된다”. 왜냐하면, 부주의, 감정의 동요, 성격의 유약함, 그리고 역량의 높낮이에 따른 무의식적인 뉘앙스 부여 등에 따르는 발설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완전한 신뢰는 주관적 요소들의 매우 강한 우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²²⁾. 바로 이런 이유로, 짐멜에게 있어, 비밀결사는 “인간 사이의 윤리적 연대의 매우 효과적인 학교”이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부여하는 신뢰에는, 이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만큼이나 높은 하나의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²³⁾.

그렇다면, 침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발설을 안 한다고 하는 서약, 그리고 위반의 경우에 감수하게 되는 처벌의 위험이 그 초보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입문자에게 함구할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도 비밀결사에서 자주 이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짐멜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순히 정해진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함구를 넘어서서 자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즉, “엄격한 자율적 규제와, 삶에 대한 양식화된 순수성(*une pureté stylisée de la vie*)”에 이를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즉, 몇 년간을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유

22) 같은 글, p.68.

23) 같은 글, p.70.

짐멜이 비밀결사를 “윤리적 연대의 효과적 학교”라고 특징짓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의 윤리적 힘의 유희적 형식”으로서의 ‘사교성’에 대해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f. Simmel, G., “La Sociabilité”, *Sociologie et Epistémologie*, Paris: PUF, 1981, p.133.

혹에도 건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²⁴⁾. 또 다른 유형으로서 짐멜은 골(Gaule)의 신관(神官)들의 경우 각 신관들이 암송해야만 하는 종교적 송가의 예를 든다. 그런데 송가의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암송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암송은, 비밀의 보호를 넘어서서 각 신관으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가르침은 하나의 객관화된 텍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을 통하여서만, 즉, 오직 집단 내부에서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각 구성원은 매우 밀접하게 ‘공동체’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짐멜은 ‘필기의 형식’의 발전과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해방의 상호 관련을 가정한다²⁵⁾.

위에서 우리는 비밀, 침묵, 그리고 신뢰의 상호 관련을 살펴보았다. 이 점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 특히 침묵과 비밀의 ‘법칙’을 분석하는 타퀴셀(Patrick Tacussel)의 논의는 위의 분석을 확인하면서 확장시킨다. 타퀴셀에 의하면, 웃음, 울음, 침묵 등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웃음과 울음은 말로 표현 “될 수 없는” 것인 반면, 침묵은 말로 표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침묵은 자아의 여러 차원에 내재화된 제약의 효과 안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심리학적이거나 보다는 사회적”이라고 타퀴셀은 분석한다²⁶⁾. 그리고 그는, 침묵의 집단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범주를 구분하는데 이는 다음과

24) 같은 글, p.71.

25) 같은 글, p.72.

26) Tacussel, Patrick, "Les Lois du Non-dit : Silence et Secret", *Diogenès*, octobre-décembre 1988, no. 144, UNESCO. pp.18-19.

유사한 문제의식 하의 또 다른 사회학자의 글로는 cf .Le Breton, David, *Du Silence*, Paris: Editions Métailié, 1997. 제3장 1절 ‘비밀의 법칙’.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 첫째, ‘동의된 분위기’로서의 침묵 : 하나의 공유하는 감수성의 힘을 측정하게 하며 배제 방식으로 효과적이다 ; 그것이 하나의 일시적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집단의 통일성을 강화시키며, 일상적으로는, 시선과 몸짓으로 충분한, 은연중 암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 둘째, 저항으로서의 침묵 : 이 경우 침묵은, 모든 “친화성의 네트워크의 경계들”을 그리며 보호의 기능, 집단 내부 연대의 강화 기능을 가진다.

- 셋째, “성(聖)의 관리가 요구하는, 세속사의 시간성의 중단으로서의” 침묵과 이를 통한 자연, 인간 환경과의 합일 : “신비로운 것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넷째, “무식한 자”의 급작스런 침묵은 “비의도적인 문화적 불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의 침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그의 대화 상대의 발화의 순간은, 그의 ‘무지의 탄로’에 대한 걱정 혹은 무관심으로 체험된다. 그러나 다른 이의 대화에만 의존하는 자의 침묵은, 자가-성찰, 주위에 대한 명석한 지식, 그리고 거짓 꾸밈의 잠재적 위협의 징조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존경과 위엄의 표식으로서의 침묵 : 투사의 적극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대중의 소극적인 저항에서도 침묵은, 당파나 정당, 가족의 명예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파나 제약에 대한 억제된 분노나 경멸을 내포하는 무관심을 나타낸다.²⁷⁾

27) Tacussel, 같은 글, pp. 19-20.

2) 공동체로서의 비밀 결사²⁸⁾

비밀의 준수를 위한 침묵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우리는 위에서, 구전되어 암송되는 종교적 송가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또한 ‘공동체’에의 소속감이 강화됨을 지적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짐멜은, 기존의 공동체의 목적을 보호하고 그것들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밀의 형식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일정한 내용들을 비밀리에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의 은밀한 독트린이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신비주의적인, 혹은 종교적인 지식들을 그들 모임의 본질로 삼고 있는 비밀 결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²⁹⁾. 즉 위의 지식들이 대중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문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짐멜의 의미에서의, “사회화(socialisation)는, 각자에게 ‘말하려는’ 유혹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학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즉, ‘사회화’는, 비밀로부터 결과하는 ‘고립과 개체화’에 대한 ‘평형추’의 구실을 한다. 이 지적을 짐멜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킨다: “사회화의 모든 형식들은 끊임없이 그 형식들의 내부에서만 아니라, 그 내용의 내

28) ‘비밀결사’와 ‘공동체’의 연결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Robert Nisbet(*The Sociological Tradition*(1966))의 경우, 짐멜의 ‘비밀결사’를 그가 제안하는 사회화의 기본개념의 하나인 ‘공동체’의 범주에 집어넣으면서, “분자(分子)적 공동체”라고 이름붙인다.

카이유와는 ‘비밀결사’를 “선택적 공동체”(communauté élective)라고 부르기도 한다. (Caillois, Roger, "Confrérie, Ordres, Sociétés Secrètes, Eglises"(1938), Hollier, Denis, *Le Collège de Sociologie*, Paris: Gallimard, 1979.)

29) Simmel, 앞의 글, pp.79-80.

부에서 개체화와 사회 생활의 필요를 이전한다 (...) : 비밀결사는 이렇게 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모든 비밀에 고유한 배제의 순간을 보상한다”. 달리 말하면, “사회화는, 비밀이 존속할 때 그것의 결과인 고립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비밀 내부에서, (...) 공동체적 본능에 대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이제, 비밀의 효과로서의 고립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사회화’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짐멜이 분석하는 비밀 결사의 특징들인 ‘위계’와 ‘제의(祭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앞서 살핀 ‘입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위계’의 원칙을 살펴보자. 비밀결사들은 위계, 즉 “구성원들의 등급에 의한 조직의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섬세함과 체계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짐멜은 지적한다. 이 점은, 짐멜에 의하면, “본능적인 유기적 힘들에 지속적인 규제의 의지를 (...)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즉, 비밀 결사가 그 기초에서부터 “하나의 의식적인 의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체계의 구축에 고유한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을 원칙들에 의하여 조직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비밀결사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모든 목적으로부터 분리된, 완전히 공상적인 위계적 구축들 속에 내맡겨질 수 있다고 짐멜은 설명한다³¹⁾.

비밀결사의 다양한 ‘제의’의 경우에도 우리는 위계의 경우와 유사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밀결사들은 그 자신 확립한 기초 위에서, 달리 말하면 이전의 역사적 조직들을 모델로 함이 없이 그들의 제의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형식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정

30) 같은 글, p.81.

31) 같은 글, pp.81-83.

도의 자유로움과 복잡성, 그리고 그 실행에 있어서의 엄격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확립된 제의에 대하여 비밀결사들은 흔히 그들의 목적보다도 제의의 비밀을 지키는 데에 힘을 쏟는다. 침묵의 서약은 오직 제의의 형식들에만 관련되었던 진보적 페리-메이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성이 부여된 제의의 사회학적 이유를 짐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결사의 활동들과 이익들의 모든 분야가 완벽히 완결된 하나의 통일체(unité)로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형식들의 복합적 전체를 비밀에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비밀결사는 그에게 고유한 범주 안에 일종의 존재론적 전체를 창조하려고 해야 한다 (...)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서로 지탱하는 그러한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조성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³²⁾. 군대나 종교 공동체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이, “인간 전체”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즉, “삶 전체가 매우 특수한 차원에서 그곳에 투사”되어야 하는 경우, 비밀결사의 경우와 같이 도식주의, 규정된 행동 양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두 경우 모두 “그 자체로 폐쇄된 하나의 통일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과도한 ‘제의주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분석을 보다 일반화하여 짐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비록 비밀결사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부분적인 이익’과 관련하여 비밀결사와 관련을 가질 뿐이고, 비밀결사가 그 내용상 특수한 목적을 갖는 모임에 불과할지라도 비밀결사는 “인간 전체에 호소하고 (...) 같은 내용의 개방된 모임에서보다 더욱 큰 정도로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되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제의의 상징주의”는 “모든 합리적 특수 이익들을 넘어서서, 그 한계가 모호한 무한한 감정”을 낳게 하는 것을

32) 같은 글, p.85.

33) 같은 글, pp.85-86.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목하여야 할 것은, 위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의의 형식주의가 비밀결사로 하여금 그것이 대립하고 있는 '공식적 세계'의 형식들을 자신들 안에 재생산하면서, 그것의 '일종의 복제'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짐멜은 덧붙인다³⁴⁾.

그런데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의의 세밀함과 정확성은, 비밀결사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유래하는 그것의 불안정성, 무규범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셈이라는 점이다. 비밀결사의 본질은, 짐멜에 의하면, '자율성'이다. 법의 실행의 불충분함을 보완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항하든, 혹은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든, 비밀결사는 항상 그 영역들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배제는 동시에, 법, 금지 사항,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항상 일정한 '자유'를 함축한다. 바로 이 점에서 바로 위의 '자율성'은, 짐멜에 의하면, "무정부 상태에 인접하는 자율성"이다. 따라서 비밀결사의 제의의 도식주의는 비밀결사의 '자율성'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34) 같은 글, pp.86-87.

35) 같은 글, pp.87-88.

이와 관련한 Simmel의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자 : “여기서 또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자유와 법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양이 하나의 유일한 원천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인간은,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의 주어진 양을 (...) 다른 쪽의 일정한 양에 의하여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제의를 통하여 비밀결사는, 그의 물질적 고립과 자신으로의 칩거가 보완으로서 요구하는 형식적 제약을 완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부과한다. (...) 이러한 비밀결사들의 내부의 규제적인 제의는 일부분의 자유와 자율성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대신, 인간 본성의 균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 도식주의를 요구한다.”(같은 글, pp.88-89)

3) “사회화의 전형적인 특징들의 양적인 변형”으로서의 비밀결사

비밀결사가 위계와 제의의 형식주의에 의하여 그가 대립하는 “공식적 세계에 대한 일종의 복제”가 됨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짐멜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학적 규범”이라고 단정짓는다 : “그것에 대립하면서 혹은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구조들과 대결하고 있는 구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들을 자신들 안에 재생산할 뿐이다”³⁶⁾.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형식주의를 통하여 비밀결사가 “그 자체로 폐쇄된 하나의 통일체”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비밀결사가 이와 같이 하나의 ‘통일체’라고 할 수 있다면, 동시에 분명한 점은, 비밀결사는 “하나의 완결된 사회의 내부에서만” 나타날 뿐이며, 또한 보다 광범위한 집단의 내부에서 그것에 대하여 “보다 축소된 상태”로 대립한다는 것, 그리고 이 대립은 항상 ‘폐쇄’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일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짐멜은 비밀결사들이 “사회화의 전형적인 특징들의 기본적으로 양적인 변형”임을 강조한다. 바로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제 하나의 ‘통일체’이지만, 그를 둘러싼 보다 큰 집단에 대립하는 그러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비밀결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 부분의 분석의 기본 시각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밀과 그 보상’의 메카니즘이라는 관점을 취하도록 하겠다.

우선 비밀결사는 비밀을 경계로 하여 사회적 환경과 대립하고 그로부터 배제되어 있기에,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는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 한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비밀 결사에의 소속을 확인시켜주는, 대개는 매우 복잡한 확인의 표식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36) 같은 글, pp.86-87.

환경으로부터의 배제와 그로부터 결과하는 분리, 고립은, 짐멜에 의하면, 남보다 우월하다는 하나의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이면서 구별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의 귀족을 형성”하는 것이다³⁷⁾. 그런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분리는, 이미 보았듯이, ‘입문’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비교적(秘敎的) 구성원’과 ‘현교적(顯敎的) 구성원’의 구분의 예가 보여주듯 ‘입문의 정도’에 따라 비-입문자, 부분적 입문자, 입문자로 다시 세분될 수 있고, 이중 부분적 입문자는 나머지 둘 사이의 ‘완충’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결하고 분리한다”는 ‘중개’의 이중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로부터 분리되었고, 또한 그것의 축소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비밀결사는 “집단 이기주의”로서 간주된다. 말하자면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의 무관심을 주변 환경에 대하여 표명한다는 것이다. 큰 집단의 내부에서 생존해야 하는 보다 작은 개방된 그룹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독립성’을 비밀결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와의 분리, 외부로부터의 배제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내부적인 후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후퇴 혹은 칩거는 짐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비밀결사의 특징들을 낳는다³⁸⁾. 우선 비밀결사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 중요한 대부분이 배제되기에 그의 실재적, 잠재적 동반자들은 드물어지고 이들을 대체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불화는 보존 본능에 의하여 피하게 된다. 하기에 모든 불화는 배반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공식적인 세계”의 집단들이 다양한 차원의 관계와 경험의 가능성들을 제공하면서 공개적 경쟁 상태에 있기에 이 집단들 내부의 개인들이 여타 집단들과 관련된 이익에

37) 같은 글, p.93.

38) 같은 글, pp.100-102.

의하여 동시에 자극된다고 한다면, 비밀결사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하여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각 비밀결사는 그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짐멜에 의하면, 이러한 비밀결사들의 특수한 응집의 정도에 그들의 '중앙집중화'가 상응한다. 이 점은 흔히, 비밀결사들에서 발견되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통해서 흔히 살펴볼 수 있다. 범죄집단에서의 우두머리들의 무한정하고 무자비한 권한은 그 잘 알려진 예일 것이다. 이 경우, 배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중앙집중화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식 규범과 법에 대한 비밀결사의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은, 짐멜에 의하면, "존재의 의미의 균형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종속과 모든 고유한 의지의 동일한 과도함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비밀결사의 구성원들에 대한 중앙집권적 종속에 상응하는 사회학적 특징은 그 '비-개인주의화'이다. 비밀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개인주의화와 분화를 지향하므로 이 비-개인주의화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보상임을 우리는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시 종족들의 비밀결사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마스크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우선 그것은 그 자체로 구성원들을 숨기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비밀결사 내부에서 행하는 역할 뒤로의 개인의 소멸"이다⁴⁰⁾. 짐멜은 미국에서 1870-80년에 미국에서 Clan-na-Gael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던 아일랜드 비밀결사의 예를 들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렀다고 한다. 비밀을 지켜야한다는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개체성'의 억압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를 보여

39) 같은 글, p.102.

40) 같은 글, p.106.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의와 위계의 엄격함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의가 이 개인적 특성에 대한 형식의 우세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위계는 개인 대신, 그의 미리 정해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그런데 이러한 비밀결사의 '전제주의'는 그 상관물로서, 다른 모든 집단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위에 종속된 이들의 평준화"를 갖게 된다고 짐멜은 덧붙인다. "공식적 세계"에서의 그들의 차이에 명백히 대립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평등은⁴²⁾, 비밀결사의 '비개성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비개성화'를 짐멜은 '무책임'과 연결시킨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 논의가 비밀에 부쳐지는 모든 위원회, 지도부, 그리고 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짐멜은 덧붙인다: "인격으로서의 개인은 집단의 말하자면 역명의 구성원의 뒤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그의 특수한 행동 안에서 파악될 수 없는, 한 존재에 결코 결부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책임도 이제 소멸된다"⁴³⁾.

이제까지의 논의는 결국 비밀결사의 특징들이 "보편적인 사회학적 사실들에 대한 일면적인 강조"라는 점을 짐멜은 지적한다. 그리고 이점은 비밀결사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비밀결사를 하나의 위협이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짐멜에 의하면, 단순한 통일체로서 이 모임들은 말하자면 중심 원칙과 말하자면 경쟁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짐멜에 따르면, 전체를 위협하는 특수한 모임들의 이러한 위협은 비밀결사의 경우, 바로 그것이 비

41) 같은 글, pp.106-107.

42) 이 점에서 Simmel은, Berlin에 널리 퍼져있었던 동성애자들의 집회에 관하여 "사회의 계층들에서 금지된 사항들의 실천이 갖는 평등화시키는 효과"를 언급하는 Bismarck의 회고를 인용한다. (같은 글, p.108)

43) 같은 글, p.109.

밀스럽다는 이유로 인하여, 배가되는 듯이 보인다. 바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짐멜은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분석을 부가한다: “비밀결사는 매우 중앙 권력의 하나의 적으로 간주되기에, 반대로, 몹시 싫어하는 모든 정치 집단들에 이 이름을 부여한다!”⁴⁴⁾

이제 이러한 ‘비밀결사’의 특징들이, 마페졸리의 ‘부족주의’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Ⅲ. ‘부족’과 ‘네트워크’의 형성 기제로서의 ‘비밀’ :

미셸 마페졸리의 경우

앞에서 우리는 짐멜의 ‘비밀결사’가 ‘진보주의’와 ‘친밀주의’가 공존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는 역설적 세기인 19세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데에 유용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친밀주의의 온상으로서의 ‘비밀결사’에 대해 부여된 중요성은, 사회학 분야에 국한하여 그 단편적 예를 들어보자면, 20세기 전반에는 ‘사회학의 콜레주’(Collège de Sociologie)⁴⁵⁾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다시금 강조된 듯이 보인다. 즉,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일종의 비밀결사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당시 경직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된 서구사회에 일종의 충격요법을 줄 것을 그들

44) 같은 글, p.111.

45) cf. Caillois, Roger, 앞의 글.

‘Collège de Sociologie’는 카이유와(Roger Caillois), 바타이유(Georges batailles), 레이리스(Michel Leiris) 등이 중심이 되어 1930년대 후반의 2년간 지속된 세미나이다. 이 당시 발표된 글들의 모음은 cf. Hollier, Denis, *Le Collège de Sociologie*, Paris: Gallimard, 1979.45) Caillois, Roger, “Confrérie, Ordres, Sociétés Secrètes, Eglises”, Hollier, Denis, *Le Collège de Sociologie*, Paris: Gallimard, 1979, p. 277 이하.

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페졸리는 이러한 '비밀결사'들의-물론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화, 사회 전체로의 확산을 가정하면서 '부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그러나 보다 완화된 모습의 비밀결사가 일종의 '공동체적 소집단'⁴⁶⁾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페졸리에 의하면 이러한 '부족'의 증가는 특히 지금의 시기가, 가치 체계, 세계관의 측면에서건 아니면, 조직의 형태의 측면에서건, '생성의 시기', 혹은 '창건의 시기'임을 말해준다고 한다⁴⁷⁾. 더 나아가 마페졸리는 지금에 있어서의 '부족'의 창건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대변해준다고 가정한다. 즉, '모더니티'의 지배적 조직 형태였던 위계적인 관료제적 조직으로부터 '포스트-모더니티'의 근본적 사회 조직 형태인 '부족'과 네트워크로의 중심 이동⁴⁸⁾,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적인 대규모 사건사(事件史)로부터, 대중, 혹은 민중이 중심이 되는 "밀로부터의 역사", 혹은 "그날 그날 체험되는 역사"로의 중심 이동⁴⁹⁾. 결국 마페졸리의 '부족주의'에서는 지배자보다는 대중, 그리고 이들에게서 형성되는 소집단-즉, '부족'-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셈인데, 이제, 앞서 분석한 '비밀'과 연관하여 이 메카니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마페졸리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짐멜에게 있어서의 '비밀결사'의 '비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보호'의 차원이, 마페졸리에게 있어서는 기존 정치제도, 기존 권력과의 직접 대결 및 충돌의 회피를 의미하는 여러 형태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46) Maffesoli, Michel, *Le Temps des Tribus (Le Déclin de l'Individualisme dans les Sociétés de Masse)*, Paris: Méridien Klincksieck, 1988. p.122.

47) 같은 책, p.33, p.81.

48) cf. 같은 책, p.17의 도표 참조.

49) 같은 책, pp.151-152.

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이제 “모듬살이(être-ensemble)의 근거 혹은 이유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대중의 관심의 ‘재 집중’⁵⁰⁾을 가능하게끔 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모듬살이(être-ensemble)의 근거 혹은 이유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대중의 관심의 ‘재 집중’은, 마페졸리에게 있어서, ‘소집단’, 즉 ‘부족’의 생성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실험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⁵¹⁾을 의미한다. 우선 ‘정치적 무관심’을 ‘이중성’의 범주와 연결시키는 마페졸리의 분석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1. 비밀, ‘이중성’,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마페졸리에 의하면, 외부, 혹은 외부 권력에 대한 집단의 ‘비밀스런’ 태도는 ‘이중성’(duplicité)⁵²⁾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범주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이중성’은 “사회의 영속성”의 기원이다⁵³⁾. ‘이중성’은 우선, “이것인 동시에 저것인 것”, 혹은 “참여하면서 거리 두기”, 혹은 “--- 하는 척”하는 행동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중의 권력에 대한 ‘이중성’은 직접적인 대결과 충돌보다는 아이러니, 풍자, 비웃음, 유머, 혹은 기권 등, 여러 형태의 “정치적 무관심”⁵⁴⁾

50) Maffesoli, Michel, “Présentation”, Durkheim, Emile,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Paris: Le livre de poche, 1991, p.27.

51) *Le Temps des Tribus*, p.35.

52) 같은 책, p.69.

53) 같은 책, p.50.

54) cf. 1815-30년대의 생-시몽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열정이 힘을 잃어 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 도그마들이 힘을 잃어 가는 과정의 복잡성에 대해 분석한 테오도르 쥬프루와(Théodore Jouffroy)는, ‘정치적 무관심’의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 습관에 의한 무관심, 회의, 투쟁, 사기 저하. (Ansart, Pierre, “Jouffroy et le Désamour Politique”, Maffesoli, M. et Rivière, C. (s.l.d.), *Une Anthropologie des Turbulences*, Paris: Berg

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중성'은 대중들로 하여금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모순되는 행동들을 취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 대한 지지의 비율이 시시각각 의미심장하게 변화할 수 있고, 한 선거에서 다른 선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숫자는 또다시 변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마페졸리는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이중성'은, 마페졸리에 의하면, 권력욕(libido dominandi)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이들에 대한 대중의 거리 두기, 결국, 대중들의 뿌리깊은 '상대주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⁵⁾. 그리고 대중들은 이를 통하여,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하여 복종하는 듯한 일종의 '속임수'를 씌움으로서 상대적으로나마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중성'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다음에 두고 있다고 마페졸리는 보다 일반화시킨다 :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아무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인간 본성의 구조적 이중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⁵⁷⁾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중은, 그래서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제약에 대항하여, “오불관(吾不關)의 태도”(quant-à-soi)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마페졸리에 의하면, 이러한 '이중성'의 효과는, 현대 대중들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족'들의 “집단 이기주의”이다. 즉, '이중성'을 통하여 이 집단은 보다 넓은 전체 안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International, 1985, pp145-147.)

55) *Le Temps des Tribus*, p.50.

56) Maffesoli, Michel, *La Transfiguration du Politique (La Tribalisation du Monde)*, Paris: Grasset, 1992, pp102-103.

57) 같은 책, p.106.

58) 같은 책, pp.107-108.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율성은, 직접 대결의 기피, '행동주의'와 '투쟁주의'에 대한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그리고 또한 여성, 동성, 환경, 그리고 생태운동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들은 위선, 타협, 퇴화라고 비판되지만, 마페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대중을 구성하는 '부족'들의 영속을 보장하는 것이다.⁵⁹⁾

2. 정적(情的) 연대의 강화

이러한 집단의 외부에 대한 '비밀스런' 태도는 장기에 걸친, 집단 전체의 '보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집단의 '보존'을 떠받치고 있는 메카니즘은,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적(情的) 연대⁶⁰⁾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부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은 도움을 주고받음을 통해 "유기적 관계"의 꼭 짜인 망,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⁶¹⁾의 의미 안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각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양한 종교 종파들은 이 과정을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 준다. 이를 위해 마페줄리가 인용하는 두 종파의 예를 따라가 보자.

우선, 루이스(B. Lewis)가 중세 이슬람의 테러리즘과 정치를 분석하면서 언급하는 'taquiyya'의 doktrin이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59) *Le Temps des Tribus*, pp.117-118.

60) 이 점과 관련하여 짐멜은 사회관계에서의 '충실함'과 '감사하는 마음' 등의 감정, 정서적 차원이 사회의 '존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바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cf. "La Fidélité et la Gratitude", G. Simmel, *Sociologie*, Paris; PUF, 1999.

61) Clain, O. "Communauté", *Les Notions Philosophiques. Dictionnaire*, (Encyclope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II) Paris; PUF, 1990, p.362.

것이다⁶²⁾. 이 'taquiyya'의 독트린에 따르면,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해있을 경우, 자신의 고유한 신념들을 감출 수 있고, 그것은, 그들 신앙의 온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는 물론, 그들의 “종교적 행동주의”라 할 수 있는 광신적 행태이지만, 지금 우리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 독트린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일 것이다 : 즉,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종파의 활동을 더욱 완벽하게 해주는, 구성원들간의 ‘연대’의 생성.⁶³⁾

또 다른 예는, 유대교 종파의 하나인 Dunmehs de Salonique의 예라고 할 수 있다⁶⁴⁾. 이들은 위와 같은 유형의 또 다른 예이지만, 보다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예언자인 Sabbatai Zebi에 뒤이어 집단 전체는,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외부적 희생”을 치른 후, 그들은 집단의 비밀 안에서 온전히 그들 고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부조, 그리고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행정직원들의 매수도 확인되는데, 보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 부분이다. 즉, 그들의 연대는 매우 강렬한 성격의 것이었기에 그들 안에서는 족내혼(族內婚), 그리고 여인들을 상호 교환하는 일종의 통음난무의 제의들까지 발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실천의 정당성을 그들의 경전인 Zohar나 Kabbale로부터 도출하여 입증한다. 결국, 여기에서 ‘개

62) Lewis, B., *Les Assassins, Terrorisme et Politique dans l'Islam Médiéval*, Bruxelles; 1982. (Maffesoli, *La Transfiguration du Politique*, p.108에서 재인용)

63) Maffesoli, 같은 책, pp108-109.

64) cf. Scholem, G., *Le Messianisme Juif*, Paris; 1974.

Scholem, G., *Sabbatai Tsevi*, éd. Verdier, 1983. (Maffesoli, 같은 책, p.110에서 재인용)

종'은 저항의 하나의 수단인 셈이고, 그것은 “이중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⁶⁵⁾

그런데, 마페졸리에 의하면, 이러한 비밀의 실천들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종교적, 신비주의적 종파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앞의 보다 정형화된 경우들을 바탕으로, 보다 일상적 차원의, 동일한 유형의 실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노동 윤리’의 상대화, 그리고 ‘여가’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마페졸리에 의하면, ‘노동’에 있어서의 ‘생산주의’의 여러 제약에 대한 저항은 노동 속의 일종의 “비-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형태를 띤다. 즉, 결국, “월요일의 휴업”(Saint-Lundi), 점원의 부정 이득 등으로부터, 간부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실천들, 그리고 동료들이 가져온 음료나 다과를 나눠먹는 일 들까지 그 예는 폭넓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노동”들은 대개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들이 일터에서의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유대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즉 한편으로는 “가까운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속의 “비-노동”이라는 일종의 ‘비밀’의 공유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란, 이 경우, 공유한 비밀을 통하여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 사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행, 소비, 세계관들을 전파하거나 혹은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65) Maffesoli, 같은 책, pp.110-111.

것"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페졸리는 주장한다.⁶⁶⁾

이 점에서 보자면 여가, 놀이의 차원은, 마페졸리가 보기에,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여가나 놀이의 차원은 그야말로 집단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들이다. 반면, 흔히 이러한, 연대의 생성과 강화에 근본적인 차원은, '생산주의'의 이념에 비추어보자면, 하찮은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제시되어 왔는데, 이는 그야말로 '이중성'의 차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3. 네트워크의 형성

앞서 우리는 대중, 저항, 그리고 비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마페졸리에 의하면 이러한 세 요소의 결합의 조직적 형태가 바로 네트워크이다.⁶⁸⁾ 김지하의 동학 조직 분석⁶⁹⁾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김지하에 의하면, 동학 조직의 기본 원리로 알려져 있는 포접제(包接制)의 특징중의 하나는 연비제(聯臂制)인데, 이 조직 방식은, “매우 탄력 있고 유기적이며 기동력 있는, 그리고 살아 생동하는 민중적 조직운영의 빛나는 사례”이다. 연비제란, “알음알음, 친척, 가족, 특히나 통혼권에 의한 사돈간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만일 조직이 위협에 처했을 경우, 연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와 연비된 사람을 이사시키거나 피신시켜 버린다고 한다. 동시에 감혀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을 쓰든 포졸이나 옥졸들과의 교분을 트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명을 위한 빈번한 모금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김지하에 의하

66) 같은 책, p.113-115.

67) 같은 책, p.117.

68) *Le Temps des Tribus*, p.118.

69) 김지하, 「은적암(隱寂庵) 기행」, 『사상기행』 2권, 서울; 실천문화사, 1999.

면, “민중의 일반적인 인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안을 위한 긴급 조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지하는 다시 동학이 “민중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와 세계에 대한 태도 또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 또는 공동체적인 생활 태도 속에 들어있는 기초적인 삶의 세계관, 산 사람들의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을 종교로 또는 사상으로 조직적인 공동체 삶으로 고양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⁷⁰⁾

IV. 결 론

이와 같이 우리는 짐멜의 ‘비밀결사’와 마페졸리의 ‘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비밀스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짐멜에게서는 ‘비밀결사’가 외부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고, 내부적으로는 그들간의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밀’을 통해서 얻게되는 ‘자율성’,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은 내부의 ‘공동체’적 특성들에 의하여 ‘보상’됨을 알 수 있었다. ‘제의’와 ‘위계’에 있어서의 엄격함, ‘비-개인주의’, ‘귀족주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비밀결사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마페졸리의 분석은 분명 짐멜의 ‘비밀결사’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는 현 시기를 일종의 완화된 모습의 ‘비밀결사’라고 할 수 있는 ‘부족’이 창궐하는 “부족의 시대”라고 특징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실험중인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조직과 세계관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70) 같은 글, pp.179-180.

마페줄리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은 '비밀'의 영역을 '이중성'의 범주로 확장시킨 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노동 윤리'의 상대화, 구리고 '여가'의 중요성의 부각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중적 태도'들은, '부족'과 '네트워크'의 '보존' 및 확대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과 '소집단' 및 '네트워크'의 형성의 상호연관은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그리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⁷¹⁾.

71) 이와 관련, 우리의 현 정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권 정치가 뿐 아니라 정치 자체도 바로 잡겠다는 "전체적인 정치 불신"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과 생활에 기초한 소규모 정치적 움직임"을 대비시키고 있는 김우창의 지적이 시사적이다. (김우창, 최장집, 홍윤기 (좌담),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과 이성적 질서를 향한 모색」, 「당대비평」 10호, 서울; 삼인, 2000년 봄, pp34-36.)

〈참고문헌〉

- 김지하, 「은적암 기행」, 『사상기행』 2권, 서울; 실천문화사, 1999.
- Ansart, Pierre, *La Gestion des Passions Politiques*, Lausanne; l'Age d'Homme, 1981.
- Caillois, Roger, "Confrérie, Ordres, Sociétés Secrètes, Eglises"(1938), Hollier, Denis, *Le Collège de Sociologie*, Paris; Gallimard, 1979.
- Coser, Lewis, A., *Men of Ideas : A Sociologists View*, New York, Free Press, 1970. (전체 3부 중 제 1부 번역 cf. 루이스 A. 코저, 「살롱 카페 아카데미 (지식인과 지식 사회)」, 이광주 옮김, 서울; 지평문화사, 1993.)
- Durand, G., "Les Mythes et Symboles de l'Intimité au XIXe Siècle", *Figures Mythiques et Visages de l'Oeuvre, de la Mythocritique à la Mythanalyse* (1979), 2e éd., Paris; Dunod, 1992
- Durand, G., *Introduction à la Mythodologie, Mythes et Société*, Albin Michel, 1996.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유평근 옮김, 서울; 살림, 1998.)
- Hollier, Denis, *Le Collège de Sociologie*, Paris; Gallimard, 1979.
- Le Breton, David, *Du Silence*, Paris; Editions Métilié, 1997.
- Maffesoli, Michel, *Le Temps des Tribus*, Paris; Méridien Klincksieck, 1988.
- Maffesoli, Michel, "La Maffia. Note sur la Socialité de Bas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vol. LXXIII, Paris; PUF, 1982.
- Nisbet, Robert, *La Tradition Sociologique*, Paris; PUF, 1984.
- Nora, Pierre, "Georg Simmel, Le Mot de Passe", *Nouvelle Revue de la Psychanalyse*, 1975, no. spécial sur 'le secret'.
- Simmel, Georg, *Tragédie de la Culture*, Paris; Rivages, 1988.
- Simmel, Georg, *Secret et Société Secrète*, Paris; Circé, 1989.
- Tacussel, Patrick, "Les Lois du Non-dit : Silence et Secret", *Diogène*, octobre-décembre 1988, no. 144, UNESCO.
- Watier, Patrick, "G. Simmel et le Secret" Simmel, Georg, *Secret et Société Secrète*, Paris; Circé, 1989.